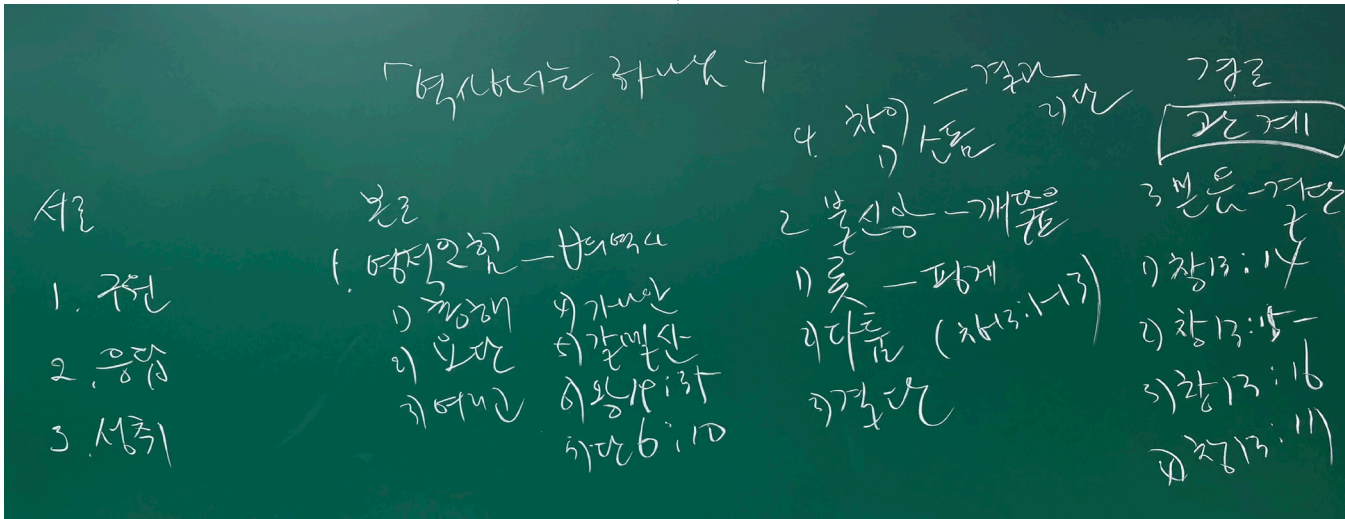


구분 구역공과 (23주차)

제목 및 성경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 13:1-18)

강사 류광수 목사

날짜 / 장소 2026년 6월 7일 / 임마누엘교회



요약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안 보인다. 손가락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인데, 정신이 돌아버리면 다 이상해진다.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사망하는데, 병원 가도 몸만 검사하지 영혼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진짜 응답, 중요한 것들은 싹 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배경, 천사들의 도움을 모른다. 그래서 렘넬트는 영적인 거 알고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만약 집에서 매일 싸우면 반드시 재앙 임하고 늘 감사하는 집이 있으면 반드시 축복이 임한다.

서론

1. 구원 - 지금도 사람 구원하고 계신다.
2. 응답 - 지금도 기도 응답하고 계신다.
3. 성취 - 지금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본론

1. 영적인 힘 - 하나님의 역사 - 영적인 힘을 아는 사람들은 불신앙을 버리게 되어 있고, 이거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
  - 1) 흉해 - 불신앙 버렸을 때 흉해가 갈라져 버렸다.
  - 2) 요단 -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요단이 갈라져 버렸다.
  - 3) 여리고 - 믿음을 가지고 도는데 여리고가 무너졌다.
  - 4) 가나안 - 소수의 믿음 가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 5) 갈멜산 - 힘 있는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왔다.
  - 6) 왕하 19:35 히스기야 왕이 앗수르에 조공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하니 앗수르가 군사 18만 5천을 끌고 쳐들어왔다. 히스기야가 밤새 기도한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앗수르 군사 18만 5천이 다 죽어버렸다. 히스기야는 이 비밀을 안 것이다.
  - 7) 단 6:10 다니엘은 실력만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성전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래서 왕을 지도할 만큼 지혜가 생겼다.

창세기 13:1-18

- 01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 02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 0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벨엘에 이르며 벨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 04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 05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 06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 0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 0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 0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 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 11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 13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 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 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 16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 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 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 2. 불신앙 - 깨달음

- 1) 롯 - 핑계 -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의지했다. 이것은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큰 죄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믿은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핑계를 댄다.
- 2) 다툼이 일어나자
- 3) 결단 - 불신앙을 내버리고 믿음을 선택한다(창 13:1-13).

## 3. 믿음 - 결단 - 믿음의 결단 자체가 축복의 시작이다.

- 1) 창 13:14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내린 후에, 하나님께서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 2) 창 13:15 이것을 네 자손에게,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 3) 창 13:16 네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될 것이다.
- 4) 창 13:17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네가 밟는 곳을 내게 주겠다.

## 4. 조그마한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 낸다.

- 1) 소돔 - 욱신의 눈이 밝은 롯은 소돔을 선택했다. 저기는 비싼 땅이다.
- 2) 단 - 아브라함은 산을 선택하여 단을 쌓기 시작했다.

▷ 믿음의 결단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만들어진다.

### ■ 결론\_ 관계

염려, 계산할 필요 없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더는 계산을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 내리는 시간에 흑암은 무너진다.

## 녹취

###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번 공과 제목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행인 것은요,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여자분들 대부분 요즘 이렇게 성형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왜 하시고 하니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안 보여요. 손가락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이거든요. 정신이 돌아버리면 다 이상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도 이제 몸만 검사하지,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진짜 응답 중요한 거는 딱 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보좌의 배경이다, 천사들의 도움이다, 이런 거 몰라요. 참 다행이지요. 그걸 알아 버리면 재벌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다, 알면 국회의원들이 다 가져가 버리지요. 다행스럽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다 죽어요.

나는 램넛트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 영적인 거 알고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그걸 하지 않고 부모님과 학교에서 배운 게 뭐냐? 최선을 다해서 악착같이 해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래 나중에 회사 가도 악착같이 합니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악착같이 합니다. 정치인이 되어도 악착같이 합니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라가 손해 나든지 말든지. 왜냐,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모른다니까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매일 싸우는 집이 있어. 반드시 재앙 임하지요. 그렇지요? 늘 감사하는 집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축복 임하지요.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 말씀 성취, 기도 응답 하고 계시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 ■ 서론

#### 1. 구원

지금도 사람 구원하고 계세요.

#### 2. 응답

지금도 기도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 3. 성취

지금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게 단테, 이게 중요한 줄 모르고 탄 거 잡아요. 그래서 찬스입니다. 경쟁자 없어요.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다른 사람 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경쟁할 것도 없어요.

### ■ 본문

#### 1. 영적인 힘 -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아는 사람들은 불신앙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 1) 홍해

이때 이걸 아는 사람 통해서 불신앙 버렸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 2) 요단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요단이 갈라져버렸어요.

#### 3) 여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을 가지고 도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 4) 가나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했지마는 소수의 믿음 가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확실하니까요.

#### 5) 갈멜산

그렇게도 힘이 있는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충격받고 반대로 나왔지요.

#### 6) 왕하 19:35

사람들은 모릅니다. 앗수르가 이스라엘에게 계속 압박하고 빼앗아가고, 이랬어요. 옛날에 우리 그 중국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간섭하고요. 자기들이 왜 우리 간섭합니까? 간섭하고요. 심지어 세자 뽑는 것도 간섭하고요. 웃기지요.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된 겁니다. 앗수르에 연락 보냈어요. “우리 아버지 때는 당신들 나라에 세금을 바쳤는데 우리가 세금을 바칠 이 유가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앗수르에 조공을 보낼 수가 없다.” 당연하잖아요. “그래?” 앗수르가 군사 18만 5천을 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뭐 자기들로서는 당연하겠지요. 이기고 죽이겠다 이거지.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이 조금 좀 흔들렸어요.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요. 조금 이렇게 은, 금을 좀 보내기도 하고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는 거지. 히스기야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밤새 생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앗수르 군사 18만 5천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령습니다. 우리의 생명, 영혼은 다 주의 사자들이 심부름해서 가져갑니다. 이런 비밀을 히스기야 왕은 알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모릅니다. 낙심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 7) 단 6:10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실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성전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이거 가치 있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다니엘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지도할 만큼 지혜가 생겼어요. 그렇지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응답 왔나? 안 와도 돼.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 2. 불신앙 - 깨달음

불신앙을 버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늦게 깨달은 겁니다. 뭐니까?

#### 1) 롯 - 핑계

조카 롯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요, 큰 죄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 남 볼 때는 아무 이상 없어요. 아니 삼촌이 조카 키우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본 거지요. 아브라함도 핑계 좋지요. ‘아 뭐 내가 자식도 없는데 조카 잘 키워서 살아야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옳게 되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핑계 댈지요.

#### 2) 다툼

이러니까 나중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 3) 결단

완전히 불신앙을 내버리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 (창 13:1-13)

그래서 이때부터 이 내용이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예요.

### 3. 믿음 - 결단

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 자체가 여러분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언제 응답 오느냐?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 내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 1) 창 13:14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내린 후에, 그 말이에요.

#### 2) 창 13:15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걸 네 자손에게,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제 창세기 13장 15절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 3) 창 13:16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될 것이다.”

#### 4) 창 13:17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네가 밟는 곳을 내게 주리라.” 믿음의 결단 내리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병이 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낮고 안 낮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렇지요? 세 청년처럼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이거 못 말리는 겁니다. 세 청년이 그랬지요. 다니엘도 똑같이 죽어도 괜찮고. 이게 이제 뭐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겠다 이거예요. 이러니 뭐 하나님이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 4. 차이 - 결과

조그마한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요.

#### 1) 소돔

욕심 많던, 욕신의 눈이 밝지요. 이 롯은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저기는 비싼 땅입니다.

#### 2) 단

아브라함은 산을 선택하여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렇지요? 한국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나라다. 성경책 들고 전도하러 와서 전도도 못 하고 죽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 못 전하고 죽었어요. 한국 들어와서 잡혀 가지고. 그러나 그분은 한국이 반드시 복음 받아야 되고 복음이 필요한 나라고 세계복음화 할 나라라고 했어요. 결과는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내릴 믿음의 결단이 그렇습니다.

### ■ 결론

자, 결론입니다.

#### [관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그, 다니엘이 한 게, 에스더가 말한 게 뭐니까? 계산을 잘해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냐, 저렇게 하는 게 낫겠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계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 내리는 시간에 흑암은 무너진다 이거야. 그렇지요? 그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 내린 겁니다. 그 시간에 이미 흑암은 무너져 버렸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막 불평불만 있었지만 거기서 믿음의 결단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제 전부 능력으로 증거로 가나안 땅에 전달되어 버렸어요. 싸울 것도 없이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결단 내리셔야 돼요. 흑암 세력은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응답은 정확한 시간표에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종일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기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어려움 속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